



알아봅시다

여름철 디카 및 IT기기 관리요령

때 이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발생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덥고 습한 여름날씨는 카메라를 비롯한 IT기기의 고장 원인 1순위다.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 MP3 등 IT기기들은 온도나 습도 등의 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름철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의 도움말을 통해 여름철 올바른 IT기기 관리법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고온 장시간 노출, 차내 보관 피해야

IT기기는 수많은 전자회로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열에 매우 민감하므로 고온이나 직사광선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한다. 고열에 노출되면 내부 회로가 고온으로 휘거나 왜곡이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액정화면이 뜨거워져 액정에 줄이 가는 등의 열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여름에는 차 안의 온도가 70~80도까지 오르므로 배터리가 화학반응을 일으켜 부풀어 오르거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차 내부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늘한 그늘에서 별도의 파우치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습기는 부품 부식의 원인, 해변에서는 커버 '필수'

습기는 디지털기기의 내부 부품을 부식시키거나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때문에 장마철이나 계곡, 바닷가 등의 환경에서는 특히나 습기를 주의해야 한다.

야외에서는 습기로부터 디지털기기를 보호하는 휴대용 보관함을 이용하고, 보관 시에는 습기를 흡수하는 실리카겔 혹은 신문지로 카메라를 말아서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면 좋다.

해변가에서는 모래나 먼지가 제품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되도록 커버를 씌우는 것이 좋다. 렌즈 교환이 잦은 디지털일안리플렉스카메라(DSLR)의 경우 이미지센서의 손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습기에 노출된 경우라면 먼저 배터리를 분리하고 드라이어를 사용해 완전히 말린 후, 본체와 렌즈를 극세사 소재의 천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면 된다.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억지로 빼려다 오히려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가끔 적 A/S센터에 맡기는 것이 좋다.

물에 빠진 IT기기 응급처치 요령

습기가 아닌 침수 피해는 침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먼저 물이 묻은 정도의 약한 침수라면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본체에서 제거한 후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리면 된다.

해변이나 계곡의 물놀이 중 카메라가 물에 빠져 발생할 수 있는 완전 침수의 경우, 약한 침수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본체에서 제거 후 일부러 말리지 말고, 젖은 상태로 비닐 팩에 담아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의로 물기를 제거하려고 시간을 지체하면 물에 접촉한 내부 부품의 부식 속도가 빨라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침수된 물이 민물인지 바닷물인지도 파악해야 한다. 바닷물 침수라면 수리를 맡길 때 별도로 말해주는 것이 좋다. 바닷물의 염분으로 인해 수리 후에도 주기적으로 고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음파 세척 등의 전문작업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 놀이때 방수팩은 '필수'

장마철부터 휴가철까지 A/S 이용률이 30% 가량 늘 정도로 습기로 인한 잔고장이 잦다. 장마철에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습기 제거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물놀이에는 방수 케이스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수심 5m까지 지원되는 카메라 전용 방수 팩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MP3, 캠코더, 전기면도기 등에 이르기까지 휴대가 가능한 다양한 IT제품의 방수 케이스들이 시판되고 있다.

-도움말 : 니콘이미징코리아, 디카팩-



▶디카팩의 디카 및 스마트폰용 방수 케이스

< Tip > 찍은 사진은 폴더 구분해 CD로 저장

대용량의 메모리 카드, 더블 슬롯 등의 저장 기술 발달로 바캉스 이후 수백 장의 기념사진을 찍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휴가에서 돌아와 컴퓨터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면 사진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 한 순간에 소중한 사진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CD로 구워서 바캉스 연도별로 정리를 해 두는 것이다. 이때 한 폴더에 통째로 넣기 보다는 날짜 별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원하는 사진을 정확하고 빨리 찾을 수 있을 수 있고, 보다 안전하게 저장해 남길 수 있다. 바캉스 한 번 다녀올 때마다 포토북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